

JTBC 월화 드라마

미스함무라비

협찬 제안서

2018.01

서울중앙지검 민사44부,

그곳엔 대한민국 누구보다 가장 가깝고 깊은 곳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리얼한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다루는 세 명의 판사가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성향과 생각을 지녔지만
우리가 경험할 법한 현실감 있는 민사 사건들을 다루며
법에 호소하는 약자들의 편에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정을 만들려 한다.

한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판사실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자신의 권리 위에 잠들지 않는 당당한 청춘을 이야기 할
대한민국의 '정의' 그 중심, '법정'에서 펼쳐지는
인간에 넘치는 따듯한 드라마

2018년 휴머니즘 리얼법정활극
<미스함무라비>가 시작된다

작품개요



제 목	미스 함무라비
형 식	70분 / 16부작미니시리즈
방송사	JTBC (품위있는 그녀, 청춘시대2 등)
방 영	2018년 5월 중
장 르	법정물, 직장물
제작사	스튜디오앤뉴
원작자	문유석
연 출	곽정환

기획의도

민사 담당 세 명의 판사들을 통해 듣는
“우리 사는 세상 이야기” 리얼 법정 활극



엘리트 원칙주의자
임바른 판사(男)

X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박차오름 판사(女)

+



출세포기 현실주의자
한세상 판사(男)

[휴먼]

우리가 겪을 법한 이야기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는
휴먼드라마

[청춘]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매력있는 청춘남녀의 성장드라마

[리얼 법정]

현직 판사가 직접 집필해
법정의 리얼함과 현장감을
담은 진짜 법정 드라마

흥행 포인트 1

형사가 아니라 ‘민사’다!

범죄조직연루, 혈흔이 난자한 형사사건들과는 차별화!
어느 날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실제 민사 소송건으로 공감대를 자극한다

“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과 친분 표시라는 상사”

“육아 휴직을 냈는데, 해고를 당해버린 워킹맘”

“인터넷에서 자신의 과거를 지울 권리를 주장하는 유명인”

”

#직장내 성추행

#잊혀질 권리, 잊을 의무

#폭력과 정당방위의 차이

#갑질 시장과 복수

#육아휴직의 끝은 해고?

#기러기 아빠와 불륜 엄마

흥행 포인트 2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청춘 드라마

매력 있는 청춘들이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판사판 미생!

“

실력 있고 매력도 있는 젊은이들이 끈대들의 사회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승리하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개인의 행복과
사랑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누리는 이야기
<미스 함무라비>는 판사 뿐 아니라, 속기사, 여경 법원 경위까지
자기 일을 아무지게 해내면서 지금 이순간의 소소한 행복들도
누릴 줄 아는 멋진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다.

”

흥행 포인트 3

현직 판사가 집필한 진짜 법정 드라마

현직 판사가 직접 쓴 소설과 대본
아직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리얼한 판사실 내부와
시청자가 배심원이 된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 속 다양한 이야기를 마주한다

“



★★★★★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이야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읽는 중입니다

한눈물 흘립니다

정의가 법원에서 이루어지기전에

개인 각자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구매](#)

★★★★★ 저자가 판사 문유석이다.

마지막까지 술술 읽힌다.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라 생각할 부분이 많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고로, 읽어야 한다. [구매](#)

★★★★★ 술술 읽혀 나가는 소설이었다. 유쾌한 캐릭터를 만나고 또한 법원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나게 되었다.

LetterFrom Earth | 2017-06-06 | 공감(1) | 댓글(0)

[Thanks to](#)

”

제작진

따뜻한 인간애적 정서에 기반한 몰입감 높은 전개력과 영상미 추구

연출/극정환감독

tN <THEK2> KBS <추노>, 를 통해 연출력과 영상미를 인정받으며 다수 드라마 흥행 기록

[경력]

THEK2 2016 (tN 자창욱/윤아)
 동네의 영웅 2016 (tN 박시후/조상하/유리)
 배스켓볼 2013 (tN 도지한/이엘리아)
 도망자 Plan B 2010 (KBS 비/이나영)
 추노 2010 (KBS 장혁/오지호/이다해)

tN <THEK2> 66%



KBS <추노> 252%



작가/문유석 판사

<미스 함무라비> 한겨레 칼럼 연재 및 출간으로 화제를 일으킨 법조계의 오피니언 리더

[경력]

2016.02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 2016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 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도서]

미스 함무라비 2016, 개인주의자 선언 2015, 판사유감 2014

“나는 문유석 판사 생각의 대부분과 그의 성향의 상당 부분이 나와 겹친다는 데에 경이로움까지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다.”

손석희 [TBC 뉴스룸] 앵커



[도서] **보내진 후회 도서 <미스 함무라비>** | 시나리 | 2016.12.20.
 -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0원 - 지성원에서 성수형8
 를 읽고, 꼭 익힌 교수드라마에서 실제 문건을 하는 문진자를 알게 지 호이
 법원에 미니스커트 지원으로...



“**‘문유석’ 수석영 ... 법조계 SNS 오피니언 리더는 누구** | 법률신문 |
 방문을 두들기며, 지난 2월 15일 문유석(46·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
 의 페이스 북에 올린... 2012년 **화제**가 된 성수문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작사

<태양의 후예> 시청률 38.8%에 이어 또 한번 드라마 흥행 신화를 꿈꾸다

[제작사 스튜디오앤뉴]



NEW의 자회사로서 영화·드라마 제작을 담당
2016년 <태양의 후예>로 드라마 흥행 기록



'기괴괴' '미스함무라비' '안시성'... 스튜디오앤뉴 막강...
영화 투자배급사 NEW(총괄대표 김우택)의 영상콘텐츠 제작사가 주요 라인업을 공개했다. ... 단진한 스튜디오앤뉴는 올 가을

싱글리스트 | 엔터테인먼트



드라마도 NEW, 영화도 NEW, 스튜디오앤뉴 라인업

KBS 연예 | 2017.04.20. | 네이버뉴스 |

제작사 스튜디오앤뉴(STUDIO&NEW, 대표 장정익)가 주요 회사 JTBC와의 MOU 체결을 알리면서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고하고 있다. 스튜디오앤뉴는 <태양의 후예>의...



NEW '스튜디오앤뉴' 초특급 라인업... '기괴괴'부터 '통네변호사 조들호'...
서울경제 | 2017.04.20. | 네이버뉴스 |
[미스함무라비] (스튜디오앤뉴 제작)는 문유석 판사의 동명 소설을 드라마로 옮긴 많은 제작사들이 작품화하고 싶어서 판권을 담넌 작품이다. 초미미를 입고 칼질! '의욕 과다' 열혈 신인 판사...

나 '조들호'부터 '안시성'까지, 스튜디오... 뉴스엔 | 2017.04.20.

나 드라마도 NEW, 영화도 NEW, 스튜디오... KBS 연예 | 2017.04.20. | 네이버뉴스

[흥행작품 연혁]

2012년
<7번방의 선물> 1280만명



2013년
<변호인> 1130만명



2016년
<태양의 후예> 38.8% 시청률



2016년
<부산행> 1150만명



2017년
<미스함무라비>



방송사

2017년 드라마 흥행 돌풍의 주인공 JTBC



최고시청률12%
JTBC 드라마 최고시청률 기록



최고시청률 9%



최고시청률 4.1%
2017년 하반기 드라마 화제성 1위
(sourced by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캐스팅

아이돌 출신의 화제성과 연기력을 모두 겸비한 2018년 연기돌 최대 기대주



남자주인공 임바른役
Cast. 엘

[최근 출연작]
2017 <군주>, 14.9% 이선 役 주연
2016 <꽃미남 브로맨스> 출연
평균 10만뷰 기록



[단독]인피니트 엘, 주연으로 우뚝... '미스 함무라비' 남주인공

뉴스1 | 2017.10.25. | 네이버뉴스 | [G](#)

17.7.1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겸 그룹 인피니트로 활동 중인 C 편성 논의 중인 '미스 함무라비' 출연을 검토 중이다. 24일 복수의 방송 엘은 '미스 함무라비' 남자 주인공 임바른...

제목 엘 나온다 미스함무라비 뉴스

와 나 드라마 아 좋아하는데
군주 다왔고, 이제 또 다른 드라마 나왔어 뉴스

아이돌 출신의 화제성과 EXO 도경수를 잇는 연기력을 겸비
2017년 <군주> 14.9%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드라마 주연으로 출연하며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기도 한 2018년 가장 주목받는 연기돌!

캐스팅

고아라, 성동일 <응답하라 1994> 부녀의 귀환



여주박차오름역
Cast. 고아라

최근 출연작
2017 <블랙, 4.1%> 강하림역
2016 <화랑> 131% 아로역
2015 <너희들은 포위됐다>
14.2% 어수선역



주조연한세상역
Cast. 성동일

최근 출연작
2017 <슬기로운 김방생활>
5.5% 조주임역
2017 <푸른바다의 전설>
14.2% 마대영역
2017 <청년경찰>
535만 관객, 양교수역

미스함무라비 고아라, 성동일 캐스팅 응사부녀의 재회로 화제성 급증

응답하라 1994 갤러리

게시글(초계상장) | 갤러리 검색 | 즐겨찾기 | 연관 갤러리(TV10 | 갤러리 주소록) | 이

최근 방문 갤러리

응답하라 1994

제목: 대박! 미스 함무라비 성동일 고아라 캐스팅

응사부녀가 미스함무라비 캐스팅 됨 ㅎㅎ

여기서도 뭐나 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박 아니냐?

한편 기대된다 ㅋㅋㅋㅋ



[단독] '법정물 도둑' 고아라, '미스 함무라비' 여주인공

뉴스1 2017.11.08 | 네이버뉴스

뉴스1 DB @ News1 배우 고아라가 JTBC 새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1 취재 결과, 고아라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미스 함무라비'를 제1인물로 맡고 싶다고 밝혔다. '미스 함무라비'는...



[단독] 성동일, '미스 함무라비' 캐스팅, 인피니트 엘라, 후송

스포츠투스 2017.11.08 | 네이버뉴스

최근 복수의 연예 관계자를 스포츠조선 통해 '성동일이 '미스 함무라비'로 1년 크랭크로 돌아온다'고 전했다. '미스 함무라비'는 '응사부녀'의 동생인 성동일의 동생인 후송을 원작으로, 김지에게 맡기고...

안정적 연기와 역할로 호평 받은 <응답하라 1994>의 연기 톤으로 돌아온 고아라
주조연급 역할로 매 작품 확실한 감초 역할을 해내는 성동일
응사부녀의 귀환 만으로도 캐스팅 자체 화제성 만발

여주인공 캐릭터 상세



박차오름 役 / Cast. 고아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좌배석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라구욧!’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외쳐대는 열혈 정의파 초임 판사

[대한민국 최초 음대 (그것도 중퇴) 출신 판사]

서울중앙지법 초임 발령받아 첫 출근길에 지하철 성추행범을 니킥으로 때려잡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문제라는 부장판사의 막말에 분기탱천!!

다음 날 초미니 스커트에 스틸레토 힐 차림으로 출근해 법원을 발각 뒤집어놓는다.

부장판사가 초미니를 보고 경악하자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겠다며 미리 준비한 부르카를 입고 나타나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능청스러움이 있는가 하면 툭툭 튀는 애교로 반대자들을 어느새 내 편으로 만드는 친화력을 겸비한 그녀! 한마디로 그녀는 타고난 리더다!!

공감능력은 지나칠 만큼 풍부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조차 얼굴에 희로애락이 거울처럼 다 비쳐 보이는 그녀..

특히 힘 없는 노인, 여성, 장애인, 빈민 등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한 사건을 접하면 지나칠 만큼 감정 이입하여 돕는건 주특기를 넘어 생활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튜링닝 바람에 머리를 질끈 묶고 판사실에 앉아 기록을 검토하며 밤 새는 것도 불사한다.

‘여자라서 그래’ 따위의 말을 절대 참지 않고 응징하는 전사지만, 자신의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표현하는 걸 즐기기도 한다.

대체 종잡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남주인공 캐릭터 상세



임바른 役 / Cast. 엘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우배석

‘점수가 남아서 서울법대에 온’ 남한테 굶실대지 않기 위해 법원에 온 원칙 주의, 개인주의자 판사
 ‘엘리트 중의 엘리트’하지만 출세가 싫고 ‘멀사봉공’도 싫은 ‘혼자 놀기’의 달인

[엘리트 중의 엘리트 하지만 원칙만 고수하는 개인주의 판사]

어릴 때부터 죽어라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니고 언제나 음악 들으며 소설만 읽고 있는데 평생 1등만 했고 연수원도 수석 졸업.

그렇다고 자기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유전적 ‘로또’로 공부 하나 잘하게 태어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재수없다)

미소년 타입의 선이 고운 미남이라 여자들의 접근이 끊이지 않지만 여자라고 특별대우 1도 해주지 않고 늘 초연한 태도. (더더욱 재수 없다)

사건 해결에 필요한 판례와 논문이 어디 찾아보면 있는지 푼 치면 바로 나오고, 복잡한 사건 쟁점 파악도 인공지능 수준으로 빠르다.

그래서 임 판사 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붐빈다. 그의 의견을 물으러 온 다른 부 판사들로- 초엘리트들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

업무 면에서 보면 원칙주의자 판사다. 판사 개인의 동정심이나 선부른 선의로 함부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든 빈자든, 강자든 약자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본다. 그래서 거창한 정치이념이나 이상론은 믿지 않는다.

단지 사회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 즉 법 준수까지만 중요하고 그 외에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 서려고 애쓰고 법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차오름과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다.

박차오름의 선의는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믿기에 그녀가 늘 위태위태해 보인다-

주조연급 캐릭터 상세



한세상 役 / Cast. 성동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부장판사

‘출포판’ 법원 수뇌부가 가장 무서워 한다는 출세를 포기한 판사!

‘꼰대 판사’ 대한민국 대표 꼰대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서글픈 가장

[박차오름, 임바른과 함께 제44민사부를 이루는 재판장이자 애아버지 판사]

법원의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기에는 출발부터 글러먹은 비주류. 본인도 그걸 안다.

법정에서도 거침 없는 언행으로 ‘막말 판사’ 사건을 여러 번 일으켰다.

진성 마초, 진성 꼰대. 박차오름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하다가 의외의 역습을 당한다.

회식 좋아하고 일장 훈시 좋아하며, 배석판사들을 도제식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디서 말 한마디 안 지려 드는 희한한 계집애가 나타나서는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판례가 어떻고 미국 논문이 어떻다고 줄줄 외우는 우배석 녀석도 마한가지다. 똥이 증헌디!!!

고시도 늦고 결혼도 늦고 모든 게 늦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다른 판사들과 달리 세상의 무게를 안다.

처자식 건사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을 알고, 사람이 먼저 먹고 살아가 하기에 밥숟가락의 무게가 무엇보다 무겁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신문에서 욕 들어먹을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한 운전사의 면허를 칼같이 날려버리지 못 하고 자꾸 망설이게 된다.

딸 둘을 키우는 아버로서 인턴 사원을 성희롱 하다 해고당한 대기업 부장 놈 면상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지만,

해고까지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 놈은 밍지만 그 처자식이 눈에 밝힌다.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고 어린애들을 시골집으로 데려가 키우려는 젊은 아빠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게 최선인지 자신이 없어 고민하는 판사이다.

등장인물



정보왕 役 / Cast. 류덕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부 우배석 판사 (음주가무와 온갖잡기에 능한 훈남형 오지랴 대마왕)

[서울중앙지법 최고의 정보통이자 걸어다니는 찌라시]

중학교 시절부터 임바른의 친구로, 임바른과 함께라면 그 인기를 나눠 가졌던 훈남 스타일

받쳐주는 호감형 외모로, 바퀴벌레 같은 친화력과 음주가무는 물론 온갖 잡기에 능한 만능형 스타일이라 누구하나 미워하지 않는 캐릭터이다.

하여 서울중앙지법의 모든 소문과 인사정보를 꿰고 있는 걸어다니는 찌라시이자 오지랴 대마왕.

비뇨기과 의사의 똑똑한 아들로 태어나 아쉬움 없이 컸고, 임바른과 함께 인기를 나눠가진 능력자이지만, 늘씬하고 스타일 좋은 민사44부 속기 실무관 이도연을 만난 후로, 낮에는 적당히 실무관으로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녀가 가장 알쏭달쏭하다



이도연 役 / Cast. 이엘리아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 속기 실무관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있는 모델 같은 스타일의 빈틈없는 속기실무관)

[이중생활의 달인, 속기실무관에 부업까지? 아니면 속기실무관이 부업?]

판사실 부속실에서 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속기사로 법정에 들어온다.

일 잘하기로 법원 전체에 소문이 자자 할 정도이고 칼 같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척척 귀신 같이 처리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특 쓰아붙이는 말투로 쓸데없는 말을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깐깐함은 유능하긴 하지만 말단 공무원인데 대체 뭘 믿고 저리 고자세인지 싶기도 하다.

도통 자기 애길 안 하는지라 일 외의 사생활은 모두 베일에 쌓여있다. 모델 같이 늘씬한 스타일에 안경을 끼고 오피스 룩을 고집하는 평소와 달리

퇴근 후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을 정보왕에게 들키게 되는데...

등장인물



수석부장 役 / Cast. 안내상
서울중앙지검 민사수석부장판사

[폭탄주보다 와인과 보이차를 즐기는 세련된 엘리트 수석부장 판사]

성골을 따라잡으려 발버둥치는 진골 성공총과 달리 탑클래스 성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초임발령 받은 후 법원행정처 등 핵심 요직을 모두 거친 성골로써 깔끔하고 매너 있는 영국 신사 타입에 매사에 침착하고 여유 있다. 촌스러운 폭탄주보다 와인과 보이차를 즐기는 세련된 엘리트. 후배들의 동경의 대상. 늘 웃는 얼굴로 직접 보이차를 끓여 주며 사근사근한 말투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돌아와서 곱씹어보면 묘한 뒷맛이 남는 말들을 한다. 틀린 말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어딘가 무시무시한 말들이다.



성공총 役 / Cast. 차순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향이 낯은 천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재학중 사시 합격에 실패해서 한 번 꺾이고, 나중에 합격했지만 기대만큼 연수원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안 나와서 또 꺾이고. 그게 한이 되어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평생 미친 듯이 노력한다. 언제나 사건처리 1등을 놓치지 않고, 대법원이 조정을 강조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정을 1등이 되고. 통계수치에만 목을 매다보니 거의 반 공갈 협박으로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깥엔 원성이 자자 하다. 반면 스마트폰에 건배사며 인기 유머 시리즈며 잔뜩 저장해 놓고 자기보다 높은 고위직 판사들에게 용비어천가 늘어놓는 노력으로, 윗분들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다. 법원 내 실무연구회 토론 때 들은 임바른의 의견을 자기 것인냥, 그대로 자기 논문에 써먹었다가 박차오름의 응징을 당한다. 하지만 나중에 박차오름을 위기로 몰아넣는 대학이사장 아들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

등장인물



맹사성 役 / Cast. 이철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 참여관

보통 계장님으로 불리며 재판 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급 실무관으로 법원에 들어온 후 16년이 지났지만, 승진시험에 통과 못해 사무관 승진은 꿈도 못 꾸는 만년 7급 계장이다.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공부 하나 잘했다고 초임부터 무려 3급인 판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적개심을 품고 있다. 재판부 회식 때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괜히 샌님 같아 보이는 판사들을 건드려 보며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윤지영 役 / Cast. 엄지영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 실무관

서류 송달, 재판기록 관리, 민원전화 응대, 전자결재 초안 작성 등 법원 일반직 중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는 피라미드의 제일 밑번. 계장 승진 후 자기 일을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일과 시간 중 낮잠이나 승진시험 공부에 열 올리는 선배들이 많았는데, 맹사성 계장은 잔소리 많은 꼰대지만 자기 일은 떠넘기지 않는다. 세 살배기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 맘. 이혼한 사실은 아주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얘기했다. 색안경 끼고 볼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이단디 役 / Cast. 이예은
서울중앙지법 법원 경위

크지 않은 체구에 귀여운 외모지만 의외로 무도인, 체육인이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유도, 검도도 유단자라서 다 합치면 십 단이 넘는다. 우습게 보고 까불다가는 업어치기 한판을 당하게 된다. 민사 44부와 한 팀이 되면서, '청순가련형 미남' 임바른에게 반했다. '임 판사님은 제가 지켜 드리겠습니다!'를 입버릇처럼 외쳐댄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할 기회도 생긴다!

줄거리

부모도 선생도 친구도 학교도 다 싫던 고등학생 시절, 여름 독서학교에서 봤던 박차오름은 임바른에게 소설이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공주님이었다. 인형 같은 미모에 귀족적인 옷차림으로 리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연주하던 어린 피아니스트. 바른이에게 차오름은 마치 라퐁젤처럼 깊은 성 속에 갇힌 듯 한 조용한 소녀였다.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다신 만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바른이에게 사춘기 시절의 짝사랑으로 마음 깊숙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2년 차 우배석 판사가 된 임바른이 오랜만에 만난 박차오름은 자신이 기억하던 짝사랑 소녀와 완전 달라져 있었다. 신입 판사로 출근한 첫 날부터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니키크를 날려서 때려잡고 성희롱을 한 꼴통 부장판사에게 대드는 박차오름- 미모는 여전하지만 성격은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다.

강한 자에게 강한,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외치는 '미스 함무라비'라는 별명을 달고서- 그 놈의 '사회적 약자' 타령을 하며 초임 주제에 기존의 관행과 판례 모두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사사건건 의문을 제기하는 좌배석 판사 박차오름은 원칙주의자 임바른에게 너무 피곤한 존재다. 임바른이 재수없기는 박차오름도 마찬가지. 판사가 되어 한 방 동료로 다시 만났지만 과거의 착하고 순수하던 교회오빠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가 되었다. 말끝마다 원칙, 시스템, 부작용을 달고 사는데 아니 내가 무슨 법조 테러리스트라도 되냐? 이런 판사들만 있으니까 법원이 욕을 먹는 거다!

서로가 별로 였던 두 사람, 그런데 이상하다?! 박차오름은 표나지 않지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임바른의 모습을 자꾸 느낀다. 알고 보면 그는 무정하지 않다. 약자를 위해 외치는 자신보다 더 세심한 배려심으로 도우려고 한다. 그는 단지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싶은 거 아닐까? 임바른은 스스로를 남에게 관심 없는 차가운 개인주의자라고 여기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며 뒤에서 돕게 된다. 오히려 박차오름과 부딪히면서 온갖 사건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니 원칙으로 딱 잘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갈수록 정답을 찾기 힘들다. '나쁘고 추한 인간이 있는 것일까. 인간을 나쁘고 추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는 것일까, 나라고 이런 환경에서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못 마시는 술을 먹고 널브러져 박차오름에게 하소연 하는 임바른- 그때, 그녀가 조용히 위로해준다. '때론 폐 좀 끼쳐도 돼요. 인간이란 때론 서로에게 폐도 끼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녀는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걸까...

그런 박차오름이 위기에 처한다. 박차오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을 심문한 끝에 유죄판결을 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평소 그녀를 영웅시하던 네티즌들은 한 순간에 마녀로 몰아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녀를 지키고 싶은 임바른, 난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인물 관계도

중앙지법 수뇌부



<법원장 김홍파>



<수석부장 안내상>



<성공충자순배>

VS

MJ 그룹



<민용준이태성>

선후배
관계?!

사랑의
라이벌



<박차옴고아라>

짝사랑 그녀, 그러나 허격!
귀여운 오빠, 아니 판사님~



<임바린김명수>

막말부장판사
어떻게 좀 해봐



<한세성성동일>

골치덩어리
부하직원

중앙지법 제44부 민사부



<윤지영염지영>



<맹사성이철민>



<이단디이예은>



<이도연이엘리아>

제43부 민사부



<정보왕류덕환>

말 많은
친구!

미스터리한 그녀,
궁금하다

Sponsorship Pkg.

메인 스폰서 Pkg.

콘텐츠 내 간접, 가상광고부터 제작지원, 전회차 중CM을 포함한 드라마 방영기간 내 약 500회의 일반광고 노출을 제공하여 콘텐츠와 연계된 모든 광고상품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드라마 메인 스폰서십 패키지

[간접광고]	[가상광고]	[제작지원]	[일반광고]
단순노출(Lv.1) PPL 2회 에피소드(Lv.2) PPL 2회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 전회차 제공 (총 16회)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첫번째 노출 개런티 (총 16회)	전회차 중CM/PIB(각 16회) 전후 CM 32회 기타프로그램 440회 (약 500회)

Media Value
23억 원

10억 원 (VAT별도/대행료 포함)

Sponsorship Pkg.

프랜차이즈 Pkg.

- 주요 스토리 진행 및 에피소드 장면 촬영 시 매장 노출.
- 협찬사 브랜드 소구점에 맞춰 매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구성 협의 가능.
- 전화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청춘시대2X두끼떡볶이 집행 사례]



- 에피소드 및 매장 노출 2회
- 전화차 제작지원바 제공

1억 원 (VAT별도/대행료포함)

- * 촬영 매장 제공 및 협조 필요
- * 유니폼 등 노출 내용 사전 협의 필요

Sponsorship Pkg.

식음료 Pkg.

- 협찬사 브랜드가 소구하는 방향성에 맞춘 상황 연출 협의 가능.(수분충전, 답답할 때 등)
- 청소업체 및 집안 곳곳에 식품 배치 및 시식/음용 노출.
- 전회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청춘시대2X코카콜라 골드피크 집행 사례]



- 단순음용 PPL 2회
- 에피소드 PPL 2회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1억 원 (VAT별도/대행료포함)

* 촬영 제품 외 스태프 지원 음료 제공 필요

Sponsorship Tool Guide

단순 / 기능 PPL

드라마 내 제품 비치 통한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부터
제품의 사용/음용/착장 등의 연출을 통한 제품 기능 노출 제공



[힘썈여자 도봉순_토레타 기능 PPL 사례]



[맨투맨_제이준/티파니 단순 PPL 사례]

1회 **2,000~4,000만원**(VAT별도)

Sponsorship Tool Guide

에피소드 PPL

드라마 스토리 단계에서 극중 주요 상황을 제품 음용/사용, 매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여
협찬사 니즈에 맞는 스토리와 임팩트 있는 브랜드 노출 제공



[맨투맨_놀부 부대찌개 에피소드 PPL 사례]

1회 **4,000만원** (VAT별도)

Sponsorship Tool Guide

제작지원바

몰입도 및 도달율이 가장 높은 드라마 엔딩 장면에서 브랜드 로고 직접 노출 제공



[힘쎈여자 도봉순_탐앤탐스 커피 제작지원바 사례]



[맨투맨_제이준 제작지원바 사례]

1회 **500만원**(VAT별도)

* 월단위 판매 가능

Sponsorship Tool Guide

가상광고

드라마 시작 또는 엔딩 시점에 CG를 활용한 영상 광고를 화면 위로 노출
 모션그래픽, 프레임 가상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인 브랜드 및 메시지 전달



[힘쎈여자 도봉순 에필로그 프레임 가상광고 사례]



[맨투맨 에필로그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 사례]

1회 **2,000만원** (VAT별도)

*전회차/반회차 판매 가능 (단가 별도 협의)

Sponsorship Tool Guide

풋티지/맞춤형 광고

드라마 내 진행된 간접광고 풋티지 활용 또는 별도 촬영을 진행하여 브랜드 맞춤형 광고 제작
 드라마 전후 CM으로 집행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방위적 브랜드 노출 가능



[더패키지X유니온페이 풋티지 광고 집행 사례]

별도 협의

감사합니다